|決|算|

간호업무위원회

간호업무지침서를 펴내면서

위원장 이 성 옥
〈한일병원 간호과장〉

지난 2년동안 부족한 이 사람이 간호업무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아 미력하나마 내나름대로 최선을 기우렸으나 스스로 회고해 보건대 매듭지어진 과제보다는 앞으로 연구 검토 실행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새삼스럽게 절감하는 바입니다. 멀리 10여년전과 오늘날을 비교해 볼때 간호사업은 놀랄만큼 성장하고 발전 변화 하였음을 우리는 자인하는 바입니다.

치료 중심의 간호에서 임상 보건 마취정신과 간호등 분야별로 분리되고 지역사회의 예방사업에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게 되였으며 이에 부가되어 18,000명의 간호보조원을 본부서 산하에 두게되어 더욱 광범한 책임부담을 맡아 위원장으로서의 고충이 많았음을 叱하는 바입니다.

그 실예(例)로서는 병원간호(임상) 보건간호(학교보건〈교련·양호〉산업보건)등 실무분야가 너무 광범함은 물론 담당요원들의 자질향상과 권익옹호 이외에도 간호관계 법령에 관한 연구 또한 소홀이 할 수 없었으며 이 모든 사업이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했읍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동안 간호원의 질과 량의 문제해결, 간호원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위한 노력, 또한 그들이 사회의 一員으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권익)확립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업무에 일해 왔읍니다.

이제 포부와 희망이 다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마 본인이 재임중에 여러 동료 임원들의 후원을 얻어서 1) 간호업무지침서와 2) 보건간호 업무규정 3) 학교보건 업무규정 등의 책자를 펴내게 된 것을 무엇보다 다행이라 생각하며 한편 우리들의 영원한 과제인 좋은 간호는 진실하고 성실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보다 충실하고 진보된 간호업무 계획의 수립이 시급함은 물론이고 이에 부응하는 진실과 사랑에 바탕을 둔 좋은 간호원 卽 바람직한 인간상의 소유자들이 속출할 것을 기대해 보면서 못다한 업무에 대한 아쉬움을 안은 채 이만 끝맺음을 할까 합니다.